



# With You

2017 Spring  
통권 24호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모바일 소식지 연결

## 분쟁과 박해의 최대 피해자, 난민 여성과 소녀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월계관 형상은 UNHCR이 유엔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UN기구임을 상징합니다. A laurel wreath symbolizes UNHCR is manda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사람 형상은 난민을 비롯한 UNHCR의 모든 보호대상자를 상징합니다. The person symbolizes persons of concern to UNHCR



두 손 형상은 UNHCR의 난민보호 노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Sheltering hands symbolizes UNHCR's commitment and efforts to protect refugees and persons of concern.

## Contents



### 난민보호 캠페인

시리아 내전 그 후 6년, 우리에게 남겨진 것 03



###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결혼을 강요받는 소녀들, 매년 1,500만 명 04  
유엔난민기구의 활동 06  
수혜자 이야기 08



### With You가 만난 사람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시리즈 - ① 정우성 10  
한국인 JPO 이원재 씨 인터뷰 11



### 한국대표부 소식

기관소식 + 후원자 Q&A 12  
2016년 한국 대표부 모금 현황 13



### 난민 배움터

난민 vs. 이주민,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14



###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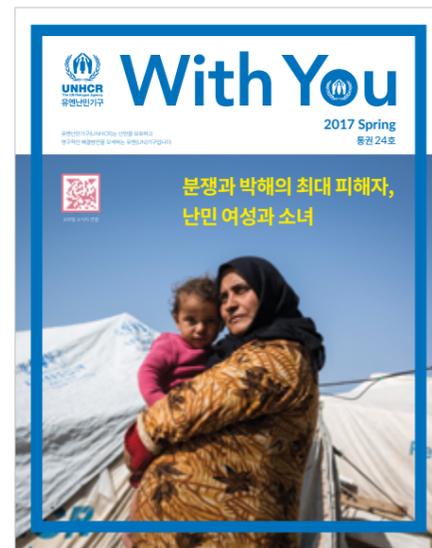
후원 신청서 15



### 함께 배우는 난민 이야기

다른 그림 찾기 16

## Cover Story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시리아 국내실향민 누즈하(Nuzha)가 한 살배기 아들 무스타파(Mustafa)를 안고 결연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3년 전 고향 알레포(Aleppo)에서의 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누즈하의 가족은, 현재 다른 2,000명 이상의 실향민들과 함께 타르투스(Tartous)에 위치한 난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UNHCR/Andrew McConnell

발행인 나비드 후세인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17년 3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디자인 슬로워크

# 시리아 내전 그 후 6년, 우리에게 남겨진 것

세 살 나왈(Nawal)은 시리아 내전 한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3년간 목격한 세상은 쾅음을 울리며 폭격을 퍼붓는 비행기, 연기로 뒤덮인 뿌연 하늘, 무너진 집과 깨어진 유리창, 어른들의 눈물과 비명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왈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는 일 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나왈과 같은 시리아 난민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11년 시작된 내전이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는 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요르단, 레바논 등 주변국으로 피난을 떠났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국 내에서 국내 실향민이 되어 인도적 보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안전을 찾아 주변국이나 유럽으로 떠난 난민들은 열악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제한된 자원을 공급받으며 빈곤과 추위, 다른 위험 요소들에 맞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발생 6주년을 앞두고 얼마 전, CNN 수석 특파원 크리스티안 아만포(Christiane Amanpour)가 요르단을 방문해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아만포는 시리아 난민 이슈 중, 특히 소녀들을 위협하는 조혼과 더불어,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지원 활동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조혼의 상처를 교육으로 극복해가고 있는 라에다의 이야기,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난민촌에서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16세 모하메드의 이야기까지, 시리아 난민들의 이야기를 우측 큐알코드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분쟁과 박해의 최대 피해자, 난민 여성과 소녀

# 결혼을 강요받는 소녀들, 매년 1,500만 명



난민 여성과 소녀 이야기  
자세히 보기



분쟁, 폭력, 박해로 강제로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난민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6,53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과 소녀들은, ‘난민’이자 ‘여성’으로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분쟁과 폭력 가운데 가족과 공동체, 사회 구조가 해체되면서 난민들은 법적, 사회적 보호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위험에 처해도 적시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이미 열악하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조혼, 할례, 납치와 성폭력 등 성에 기반한 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이나 또 다른 박해, 차별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 조혼



조혼 하는 여성  
매년 **1,500만 명**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디아의 이야기

“고국에서의 분쟁을 피해 피난을 떠난 저는 불안정한 생활에서 구출해준다는 말에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스무 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첫날 남편은 제일 먼저 제 교과서들을 찢어 불태웠어요. 집안일을 못하면 대나무 가지로 맞았고 돌로 때리겠다고 위협할 때도 있어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소녀들은 반군들에게 납치될 것을 우려해, 혹은 가난과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 소녀들은 어리게는 열 살부터 보통 스무 살이 되기도 전에, 대부분 스무 살 이상 차이 나는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조혼은 소녀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 신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소녀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임신과 출산에서 오는 합병증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15-19세 소녀들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 할례



할례 받는 여성  
매일 **6,000명**

## 말리 난민 아샤타의 이야기

“말리에서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제가 임신 4개월째 아이가 딸인 걸 알았을 때, 내 딸만은 할례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아 전 주저 없이 말리를 떠나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들이 어린 제게 했던 일을 제 딸이 또 겪게 할 수는 없었어요.”

몇몇 문화권에서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로 자행되고 있는 할례는 전 세계 1억 4천여 명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분쟁과 폭력 가운데 있는 난민 여성들도 할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요 할례 시행국 중 하나인 소말리아 출신 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케냐 다담 난민촌에서는 8세 이하 소녀 중 97%가 할례를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할례는 박해 요소 중 하나로서, 한 개인이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U에 따르면 매년 2만 명의 여성이 할례를 이유로 유럽 국가에 비호를 신청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여성 비호신청자 중 2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 납치와 성폭력



성 기반 폭력 사례  
**40,000건 이상**

(2015년 유엔난민기구 보고 & 지원받은 사례 기준)

## 브룬디 난민 니콜의 이야기

“이웃 가족이 무장단체에 몰살당하는 걸 보았어요. 그날 브룬디를 탈출해 혼자 피난길에 올랐다가 무장단체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들은 임신 중이던 제 배를 칼로 찔렀어요. 태아는 목숨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저를 성폭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 지르고 몸부림쳤지만 돌아오는 건 더 가혹한 폭행이었어요.”

전쟁 중에는 강간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때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가족과 커뮤니티를 분열시키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전시 중에 여성을 비롯한 약자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범죄의 특성상 적시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여성들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분쟁과 박해의 최대 피해자, 난민 여성과 소녀

# 유엔난민기구의 활동

## 난민보호 담당관 베논 오라크 인터뷰

베논 오라크(Benon Orach)는 에티오피아 서부 감벨라(Gambella)에서 난민보호 활동, 그중에서도 특히 성에 기반한 폭력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직원입니다.

“나로부터, 당신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 Q1. 유엔난민기구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감벨라 지역에는 30만 명의 남수단 난민이 7개의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임무는 보건 의료, 주거, 사회 심리적 서비스 등을 포함해, 이곳에서 성에 기반한 폭력의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 및 관련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면서 필요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 Q2. 난민들에게 폭력이 왜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나요?

성에 기반한 폭력은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상실한 피난 과정에 있는 난민들에게 특히 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난민들은 피난길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노상강도나 무장단체와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부모나 보호자를 잃거나 납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 난민은 식량을 얻기 위해 성을 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난민촌에 도착한 여성들 중 일부가 무장 단체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순응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납치해간다고 했습니다.

### Q3.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는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에 들어온 난민들 가운데 폭력 피해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 가정에 태양광 램프를 분배하고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 도로변과 같은 공공장소의 전략적인 위치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소녀들이 다양한 사회 심리적 지원, 개인 및 그룹 상담, 기술 및 오락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여성 친화적 공간도 설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생존자들이 마음 편히 지원을 받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폭력을 용인하는 커뮤니티에서 온 여성들은 자신이 겪은 폭력 경험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친근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7개 난민촌 내에 10개의 여성 친화적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벨라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49세 소녀와 여성에게 위생 키트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성용품이 없는 여성들은 며칠 동안 집에만 갇혀 있게 되고,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성폭력 예방의 전제조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에게 키트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에 다니고 난민촌 내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일상생활을 누리는 자율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 Q4. 더 많은 자금이 있다면 어떤 활동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난민을 돕기 위해 지원 인력을 늘리고 위생 키트와 같은 핵심 구호품을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수단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의 수는 급증하여 현재 150만 명에 이릅니다. 더 많은 시설을 세우고 여성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늘리는 등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난민들의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더 많은 후원이 절실합니다. 난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다양하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여성 난민 지원 활동



난민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유엔난민기구의 핵심적인 난민보호 활동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난민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이들을 위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보건의료, 교육, 생계 및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 127개국에서 진행되는 유엔난민기구의 여성 난민 지원 활동은 크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난민 여성의 삶은 국경을 넘는다고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불안, 고립과 역경으로 가득 찬,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 안토니오 구테레스 전(前) 유엔난민고등판무관 -



### 1 성 기반의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성폭력, 학대 등 성에 기반한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와 전문상담 치료,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2 안전한 거주 시설 및 환경 제공

난민촌을 비롯한 난민 거주 지역에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공간, 남녀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생 시설 등을 제공합니다.



### 3 여성의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 지원

병원 개원, 산전 및 산후 관리, HIV 관련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난민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4 소녀들을 위한 안전한 교육 지원

소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 전문 교사, 교실, 교구, 교복, 성별이 분리된 화장실 시설 등을 제공합니다.



### 5 생계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사, 가축 사육, 언어, 컴퓨터 등의 기술 훈련과 저축 및 대출에 관한 수업, 긴급 보조금, 창업 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 6 난민 여성의 참여 및 리더십 향상

난민 여성들이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여성 난민 지원 활동은 폭력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자율적인 한 개인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여성과 소녀들을 둘러싼 폭력과 박해, 차별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의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 및 파트너 기관과 함께 관련 법률 제정을 포함한 다양한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 유엔에서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난민이자 여성으로서 전 세계 곳곳에서 위험과 역경을 홀로 견뎌야 하는 난민 여성들에게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희망을 전해주세요!

## # 분쟁과 박해의 최대 피해자, 난민 여성과 소녀

# 폭력의 피해자에서 여성 교육가로 아이린의 이야기

코트디부아르 출신 아이린은 죽음과 폭력을 포함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날 많은 난민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린의 이야기  
자세히 보기

“여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저는 더 많은 여성에게  
자립심과 힘을 불어 넣어주고 싶어요.”

### 약동 같았던 그날 밤의 기억

고국 코트디부아르를 떠나 지난 14년간 라이베리아에서 난민으로 살아온 40세 아이린은 난민 생활에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녀는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고 일터에 나가려고 준비하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아버지가 반군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반군들은 아버지 집으로 찾아와 저를 강간했어요. 모두 다섯 명이었는데 그들은 총으로 저의 등을 쏘고 달아났어요.”

당시 아이린은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어느 병원에 누워있었습니다. 생사를 앞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린은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도움으로 라이베리아 사클레피(Saclepea) 난민촌으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고, 그녀와 아이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 다시 꿈꿀 기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된 1차 코트디부아르 내전으로 75만 명 이상이 고향을 잃었고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아이린과 같이 주변국 라이베리아에서 비호를 요청했습니다. 라이베리아 난민촌에서 머물면서 어느 정도 안전과 안정을 되찾은 아이린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국에 있을 때 재단 기술을 배워 여성들을 위한 직업 훈련소를 운영했는데,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이용해 이곳 몬로비아(Monrovia) 지역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재단 및 미용 직업 훈련 센터를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라이베리아 거주 난민 여성의 생계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부로, 아이린의 직업 훈련 센터 건립을 후원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린과 그녀가 가르치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함께 만든 옷을 판매합니다. 라이베리아 현지 여성과 코트디부아르 출신 난민 여성 모두 함께 훈련에 참여하고 있어서 지역 통합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라이베리아 여성과 코트디부아르 여성 모두 동등하게 교육하고 있어요. 라이베리아 지역 주민들은 난민인 우리를 받아주었고, 그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필요한 기술을 터득해 가족들을 부양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말이지요.”

아이린은 50명 이상의 여성에게 재봉기술, 헤어 미용 기술 등을 교육하면서 이들이 전쟁 가운데 잃었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린은 매주 여성들을 초대해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들이 자율적인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 나는 해낼 수 있다(Yes, I Can Make It)

아이린의 목표는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자립심을 키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잃은 고국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갈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곧 돌아올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제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고통이 너무 커요. 저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전 여성들에게 삶 가운데 절대 절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 모든 과정을 견뎌왔고 이렇게 잘 살아남았잖아요. 여성들에게 강해지라고, 또 절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라고요.”



훈련 센터 앞에서 밝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이린과 그녀의 학생들  
©UNHCR/Diana Diaz

\* 아이린과 같은 난민 여성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많은 여성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시리즈 ① 정우성

## “더 이상 가야 할 난민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자세히 보기

©UNHCR/Rocco Nuri

##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는 누구일까요?

유엔난민기구의 친선대사(UNHCR Goodwill Ambassador)들은 기구의 수장인 난민고등판무관과 더불어 유엔난민기구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대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친선대사들은 자신의 유명세,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유엔난민기구의 활동과 전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배우 정우성 씨를 비롯해 가수 바바라 헨드릭스, 배우 케이트 블란체,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 모델 알렉 웨 등 전 세계적으로 16여 명의 친선대사가 활동 중이며,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글로벌 특사로써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난민들을 만나면서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수 미카, 배우 크리스틴 데이비스와 같은 20여 명의 유명인사가 유엔난민기구 서포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하는 여러 친선대사의 다양한 난민보호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며, 그 첫 번째 주자로 한국 배우로서 최초로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임명된 정우성 씨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 난민보호를 남에게 권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나, 비정상인가?

작년 5월, 배우 정우성 씨가 JTBC 비정상회담 프로그램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친선대사로서 깊이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았을 법한 현실적인 안건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 중에는 난민도 있다”라는 말을 남기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전 세계 난민 이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통찰,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단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014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명예 사절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15년 6월 유엔난민기구의 친선대사로 공식 임명된 정우성 씨는 지난 3년여의 기간 동안,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전 세계 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친선대사 정우성의 발자취

2014년 유엔난민기구의 명예 사절로 활동을 시작한 정우성 씨는 같은 해 11월, 네팔로 첫 미션을 떠났습니다. 네팔 난민촌에서 부탄, 소말리아, 파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 출신의 난민을 만나고 돌아온 그는 제각각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난민들이지만 공통으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끈질긴 인내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기를 꿈꾸며,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5년에는 남수단 난민촌을 방문해 많은 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기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삼손과 약자를 보호하는 변호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로다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순수한 눈빛,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부모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바람의 얼굴을 통해, 난민들이 단지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생명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나거나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16년 정우성 친선대사는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 레바논 난민촌을 찾았습니다. 갓난아기를 차가운 텐트 안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핫산과 폭격으로 남편을 잃고 다섯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어머니 디마를 만난 그는, 그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의 이야기를 알려야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과 찍은 사진과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전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이해를 도왔습니다.

### 함께 만들어가는 난민보호

6,530만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은 전 세계 127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에는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에 공감하고 전 세계 난민과 이들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친선대사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한 곳을 보며 걸기 시작한 지 벌써 4년째, ‘난민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며,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꿈을 꾸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정우성 친선대사의 말이 더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난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함께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UNHCR/Jordi Matas

# 이란 현지에서 난민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인 JPO 이원재 씨



작년 9월 중동 국가 이란을 방문한 한국대표부 사절단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로서 유엔난민기구 이란 테헤란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기구 취업에 대한 관심 있는 후원자분들을 위해, 이란 현지에서 난민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원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Q1.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엔난민기구 이란 사무소에서 JPO로 근무하고 있는 이원재라고 합니다. 학부에서는 법학을,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국제법을 공부했습니다. 국제기구 전반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차에, 석사과정 중 국제난민법 수업을 들으면서 특히 유엔난민기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JPO에 지원했을 때에도 주저 없이 유엔난민기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Q2. JPO로 선발되어 유엔난민기구 이란 테헤란 사무소에 파견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JPO로 선발된 이후, 다양한 국제기구의 JPO 공석 중에서 희망하는 직위를 선택하여 지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난민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직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전체 유엔난민기구 사무소 중 이와 관련된 공석이 있었던 이란 사무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이란 사무소와 전화 면접을 치른 다음, 필기시험 대신 업무차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에 갈음하고 최종적으로 파견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 Q3. 유엔난민기구 직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신가요?

우선 서남아시아 지역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3개국과 유엔난민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아프간 난민문제 해결 전략’의 이란 사무소 담당자로서, 이 문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이란 국내 및 서남아시아 지역 간 협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의 각국 대사관 및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와 협조하여, 이란 사무소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기안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 Q4.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난민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이란 현지의 각국 대사관이나 이란을 방문한 공여국 정부의 관계자들과 함께 난민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다니는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는데, 한 아이가 핵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는 매우 구체적인 장래희망을 이야기해서 일행 모두가 잠시 감탄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아이가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지만, 목표를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난민 아이들에게도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Q5.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과 반면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 직원과 함께 난민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준비하는 일에 참여했었는데, 콘서트 전후로 이란인 관객들이 공연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난민과 수용국 국민과의 연대감을 잠시나마 직접 목격하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도지원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이 이란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과 협조하면서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는데 우연히도 바로 그 시기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 Q6. 본인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유엔난민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JPO로 근무하게 되었고, 실제로 업무를 접하고 난 지금도 유엔난민기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여에 걸친 JPO 근무를 마무리하고 나서도 가능하다면 계속 유엔난민기구 내에서 진로를 찾아 나가는 길을 모색 중입니다. (다가오는 5월, 이원재 씨는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 정부공여금 담당자로 파견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Q7. 국제기구 직원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개인적으로 언어 능력, 특히 영어 작문 실력이 어느 국제기구가 되었든 보편적으로 선호받는 능력이라는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개개인의 관심사처럼 국제기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지만, 우선 영어 작문 실력을 길러두면 어느 분야가 되었든 향후 국제기구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바쁜 일정에도 한국 후원자들을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원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우리나라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 정부의 경비 부담 하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 최대 2년간 파견하여 국제적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기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 하반기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선발시험 계획과 6월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기구인사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unrecruit.mofa.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관 소식

## 안젤리나 졸리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특사 연임

"저는 평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I am with you for life)"

2001년부터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해온 안젤리나 졸리가 글로벌 특사(Special Envoy)로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를 방문한 졸리는 6,530만 명이라는 전례 없는 전 세계 강제 실항민 수를 언급하며, 유엔난민기구와 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글로벌 특사로서 앞으로 전 세계 난민보호 활동에 계속해서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안젤리나 졸리는 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 유엔 사무소 테러에 희생된 유엔난민기구 직원 세르지오(Sergio Vieira de Mello) 외 21명의 인도적 활동을 기리는 연례행사에 참석해, '국제주의에 대한 옹호'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전 세계 평화와 안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2017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최종 합격자 발표

지난 2월 14일, 외교부 유엔과가 주관하는 2016년 제20차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합격자들은 유엔난민기구를 포함해 유엔대태러사무국(CTED),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이주기구(IOM) 등 9개 국제기구의 10개 직위에 파견될 예정이며, 유엔난민기구 난민심사관(Associat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Officer) 직위 합격자는 오는 4월부터 유엔난민기구 요르단 암만 사무소에 파견되어 향후 2년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올 하반기에 2017년 제21차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제10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유엔 및 국제기구 인사/채용 담당관들을 초청하여 기구별 소개 및 모의 면접 등을 진행합니다.

\* 국제기구인사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unrecruit.mofa.go.kr>



## 2017년에도 계속되는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포인트 기부

2017년에도 신한카드, KB국민카드와 함께하는 포인트 기부는 계속됩니다. 해당 카드를 소지한 후원자님들은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적립 포인트를 유엔난민기구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의미 있는 나눔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카드 결제를 통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 [www.kbcard.com](http://www.kbcard.com), 고객센터 1588-1688



### 신한카드 [www.shinacard.com](http://www.shinacard.com), 고객센터 1544-7000



##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 보기

유엔난민기구에서는 1년간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기부 내역 확인 및 출력을 원하시는 후원자께서는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인증 어는 때라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http://www.unhcr.or.kr))에서 등록: 로그인 후 기본정보 조회/변경
- 전화로 등록: 02-773-7272 (후원관리팀)

## 전 세계 난민에게 희망의 지붕을 — 쉼터 캠페인 오프라인 행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올 상반기 쉼터 캠페인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존(Survive)·보호(Protect)·희망(Hope)'을 주제로 한 이번 쉼터 캠페인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긴급구호 키트, 임시 거처 전시 및 난민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200만 난민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쉼터 캠페인은 전 세계 다른 유엔난민기구 사무소와 함께 2018년까지 계속됩니다.

\*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난민보호 활동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지난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하이원 리조트의 마운틴콘도 스키하우스에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스키 시즌의 막바지에 하이원 스키장을 찾아주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유엔난민기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정기후원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유엔난민기구를 후원에 참여해주신 많은 방문객분들과 하이원 리조트 마케팅기획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Q. 정기적 후원이 왜 중요한가요?

A. 유엔난민기구는 매년 난민을 비롯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대상자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어떠한 방식과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많은 후원자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에 참여해주시면, 유엔난민기구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호대상자들에게 적시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Q. 지인에게 유엔난민기구 후원을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엔난민기구로 연락(전화 02-773-7272, 이메일 [withyou@unhcr.or.kr](mailto:withyou@unhcr.or.kr))을 주시면, 지인에게 유엔난민기구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http://www.unhcr.or.kr))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캠페인을 둘러 보시고 직접 후원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 후원자 Q&A

후원자분들께서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하시는 궁금한 사항들을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더 많은 Q&A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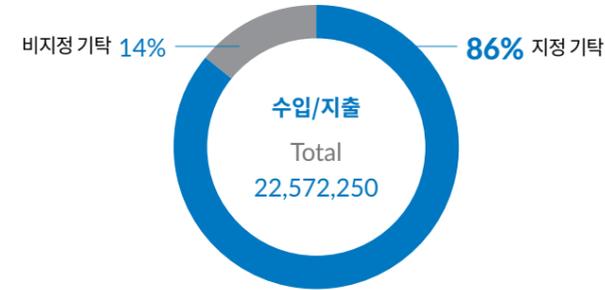
# 2016년 한국 대표부 모금 현황



지난 모금 현황 보기

## 대한민국 정부 후원금 (단위: 미화)

2016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에 미화 총 22,572,250달러를 후원했고,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 지정 기탁

● 시리아 등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따른 유엔난민기구의 추가 대응 사업 등

19,43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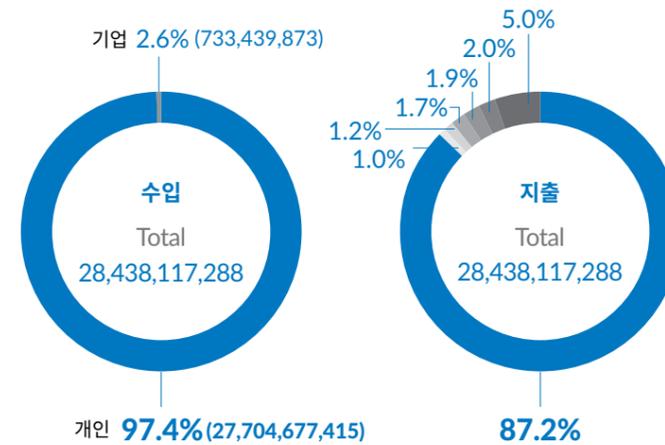
### 비지정 기탁

● 유엔난민기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3,141,620

## 민간 후원금 (단위: 원화)

2016년 개인, 기업, 재단 등 민간 부문에서는 원화 총 28,438,117,288원 이 조성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기금	기금 설명	금액
가장 필요한 곳에	● 127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보호 활동 중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24,792,197,449
시리아 긴급구호	● 시리아 난민 지원에 사용됩니다.	1,435,682,874
전 세계 긴급구호 활동	● 갑작스러운 분쟁, 폭력 등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558,662,566
글로벌 쉼터 캠페인	● 난민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545,099,599
현물_어린이용 방한 외투	● 난민 아이들에게 방한 외투를 전달하는 기업 후원금입니다.	495,505,500
SBS 희망TV 기금_케냐	● 케냐 난민촌 지원에 사용됩니다.	332,855,800
SBS 희망TV 기금_DR콩고	● 콩고민주공화국 난민촌 지원에 사용됩니다.	149,385,000
난민 어린이를 위한 교육(EAC)	● 난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 후원금입니다.	91,130,000
동아프리카 긴급구호	● 소말리아 난민과 실항민 지원에 사용됩니다.	19,911,000
나인밀리언 캠페인 기금	● 900만 어린이 난민 교육 지원에 사용됩니다.	10,777,500
MBC W 기금	● 아프간 어린이 난민 교육 지원에 사용됩니다.	6,910,000

\* 2016년 글로벌 모금 현황은 2017년 6월 발행 예정인 연례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 원칙 아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이 전 세계 난민보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기구

UN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보호와 난민문제의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기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최대 6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책임성 — 책임 있는 난민보호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을 비롯한 보호 대상자들 곁을 항상 지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책임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투명성 — 투명한 후원금 운영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유엔난민기구의 난민보호 사업에 쓰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모인 후원금 전액은 익월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송금되어,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계획과 긴급구호 대응 필요에 따라 전 세계 난민보호 사업에 사용됩니다.

# 난민 vs. 이주민,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 셀리브리타가 함께 소개하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영상 보기



여러분은 난민과 이주민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난민과 이주민은 모두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이들은 매우 다른 동기에서 고향을 떠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민을 하는 이주민은 대부분 더 좋은 일자리나 아이들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떠나며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은 고향에서 일어난 내전이나 분쟁 또는 박해를 피해 가족과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린 채 고향을 등지고 피난길에 올라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난민'과 '이주민' 두 단어가 국제법상 갖는 차이, 그리고 이 두 단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Q. 난민(refugee)과 이주민(migrant)이라는 용어는 꼭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말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언론과 공적 담화를 비롯해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섞어서 사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만, 두 용어 간에는 중요한 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용어를 올바르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 난민과 비호 신청자(asylum seeker)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비호와 이주 등의 개념을 논의하는 데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Q. 난민은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나요?

A. 난민은 국제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되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 이들입니다. 난민이란, 박해, 분쟁, 폭력, 또는 기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의 공포로 인해 출신 국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수한 곤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유엔난민기구나 관련 정부 및 단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의 비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을 다시 위협으로 몰아넣는 행위로, 잠재적으로 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비호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 Q. 난민은 국제법상 어떤 보호를 받나요?

A.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적 법체계를 '국제 난민보호'라고 지칭하며, 세계인권선언 14조는 '모든 사람은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1951 협약)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국제적 차원에서 비호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유엔난민기구가 이 협약의 시행을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1951년 협약의 조항들은 난민보호 및 처우에 관한 조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국제적 기준이 되며, 제33조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의 원칙은 이 협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이자 난민 관련 법체계의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난민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강제 추방 혹은 송환되어서는 안됩니다. 각 국가가 이 보호 원칙의 일차적인 의무를 갖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는 국가들이 이 의무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1951년 협약은 그 본질에 인도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유동적인 주변 상황과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난민보호의 가장 큰 과제는 국가들이 1951년 협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제적 협력과 책임 분담의 정신으로 협약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 Q. 이주민들도 보호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A. 우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물론 이주민의 인권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통 일자리를 찾아 삶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교육, 가족 재결합, 기근과 빈곤 등의 이유로 이주합니다. 이때 이주는 '자발적인 행위'로 이해되며, 이주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해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 혹은 보호자 미동반 아동과 같은 이주민들은 특수한 보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필요사항을 충족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동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이주 관리 방식을 적극 지지합니다.

### Q. 난민은 '강제 이주민(forced migrant)'으로 볼 수 있나요?

A. '강제 이주(forced migration)'란 사회과학자 등에 의해 한 국가 내에서, 혹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실항 및 비자발적 이동 상황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으로 이따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용어는 자연재해, 분쟁, 기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집을 떠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왔지만, 강제 이주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이주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이는 넓은 범위의 현상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난민의 정의는 국제 및 지역 난민법에 의해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국가들은 난민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난민을 '강제 이주민'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의 특수한 요구사항과 국제사회가 그들을 위해 합의한 법적 의무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따라서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이동 및 다른 형태의 실항에 '강제 이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Q. 그렇다면 난민과 이주민을 모두 포함한, 복합적 이동(mixed migration)을 지칭하기 위한 올바른 용어는 무엇인가요?

A. 복합적 양상의 인구이동을 지칭할 때 유엔난민기구가 선호하는 용어는 '난민과 이주민(refugees and migrants)'입니다. 이 방식은 이동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 보호,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난민과 비호신청자는 그들의 특수한 요구사항과 권리에 따른 별도의 특수한 법체계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난민의 보호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난민이 겪는 고통은 그들이 절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전 세계적으로 6,530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지금, 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시리아 긴급구호

내전 한가운데 태어난 세 살 나왈(Nawal)이 3년간 목격만 세상은 곁을 울리며 폭격을 퍼붓는 비행기, 연기로 뒤덮인 뿌연 하늘, 무너진 집과 깨어진 유리창, 어른들의 눈물과 비명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나왈과 같은 시리아 난민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리아 긴급구호 영상 보기

## 후원 신청서

신규 후원 신청을 희망하거나, 기존 후원자 중 추가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후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문자(1666-514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정보 이미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에만 표시

성함 \_\_\_\_\_ 생년월일 \_\_\_\_\_

휴대전화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_\_\_\_\_

신규 후원자인 경우, 후원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후원자님 후원정보는 후원관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정보 일시 후원의 경우, 아래 금액 1회만 출금 기존 후원 계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기금선택, 후원금액에만 표시

은행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명 \_\_\_\_\_ 예금주 생년월일 \_\_\_\_\_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기금선택  시리아 긴급구호  가장 필요한 곳에  헬터 캠페인  전 세계 긴급구호 — 남수단, 예멘, 이라크, 유럽,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 후원금액  100만 원이면, 시리아 난민 다섯 가족에게 경량텐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1회만)
- 50만 원이면, 시리아 난민 3,000명을 살리는 긴급구호 의료키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1회만)
- 20만 원이면, 시리아 난민 열 가족에게 비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방수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 10만 원이면, 시리아 난민 열 가족에게 취침용 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 매월 3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매월 1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 기타(  정기  일시 ) \_\_\_\_\_ 원

이 내용은 후원금 사용 예시이며, 보내주시 후원금은 전 세계 난민을 위해 각 지역의 수요 및 모금 현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보 소식지를 참고하세요.

\*정기 후원자가 일시후원하는 경우, 본인의 정기후원금에 위의 일시후원금이 1회만 더해져 출금되며, 약정서가 본인의 정기출금일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익월에 출금됩니다.

\*출금일에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 출금된 경우, 당월 25일(10일 출금) 또는 익월 5일(20, 25일 출금) 1회에 한해 재 출금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회원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예금주 \_\_\_\_\_ (서명 또는 인)

작은 보호의 손길이 가져오는 큰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다른 그림 찾기



아프가니스탄 난민 소녀가 열심히 줄넘기를 하고 있고, 친구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해서 다른 부분 다섯 곳을 찾아보세요.

\* 퀴즈의 정답을 사진 찍어 문자(1666-5147)로 '2017 봄호/후원자명/우편물 받으실 주소 (예: 2017 봄호/홍길동/서울시 중구 무교로 6)'를 기재하여 4월 30일까지 보내주시는 분 중 일부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 권구선, 이아람 후원자를 비롯해 2016 겨울호 퀴즈에 참여해주신 수많은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